

경기 침체에도 친환경차 잘 나간다

현대 기아차 EV 올들어 1만249대 계약
 쏘울 부스터 EV 3416대 계약 인기
 충전 주행거리·자율주행 기술 등 한몫
 1년만에 7년치 판매량 돌파 시장 주도



쏘울 부스터 EV

전기차를 비롯 한 친환경차가 인기 질 주를 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올해 국내외에서 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장 을 이끌어가는 모양새다.
 ◇두 달 만에...= 25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기차(EV) 계약 대수가 1만 249대로, 두 달 만에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한 해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 전기차 대수(2만 1986대)의 46.6%에 이른다.
 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만7943대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1년 치 판매량의 절반을 달성한 셈이다. 차종별로는 코나 일렉트릭의 계약 건수가 4055대로 가장 많았다.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지난해 1만1193대가 팔려 국내 전기차 모델 중 가장 많이 팔렸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신형 쏘울 부스터 EV의 경우 출시 전임에도, 디자인 개선·주행가능거리 확대·첨단 편의 안전 사양 등을 갖추면서 3416대의 계약이 진행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쏘울부스터 EV의 올해 예상 생산량이 2000대인 만큼 목표량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니로 EV가 2187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591대 계약됐다.
 지난해 판매실적 대비 계약 진도율을 계산하면 니로(125.3%)는 이미 100%를 넘겼고 쏘울은 99.5%를 기록했다.
 두 달만에 지난해 판매된 실적 수준의 계약이 이뤄지면서 올 한 해 전기차 시장 주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획기적으로 개선한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다양한 자율 주행 보조 기술

등도 시장 판매량을 늘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신형 쏘울 EV는 1회 충전 시 386km를 달려 기아차 전기차 중 최장의 주행거리를 갖췄다.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1회 충전거리가 406km에 이르고 니로 EV는 385km를 달성했다.
 올해 출시 예정인 더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기존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과 동력 성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을 대폭 강화해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시장, 1년 만에 7년치 판매량을 넘어서=국내 전기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2만5593대가 팔렸다. 지난 한 해 팔린 전기차 2만 7943대인 것을 감안하면 7년치 판매량을 1년 만에 넘어선 것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올해도 비슷하다. 환경부가 내놓은 올해 친환경차 보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76%가 늘어난 5만7000대 수준이다. 전기차(승용차) 보급 물량이 4만2000대, 수소전기차 4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만대 등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중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78.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량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자동차업체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쉐보레도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계약을 개시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운 볼트 EV가 올해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5000대)보다 도입 물량을 늘린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볼트 전기차(EV)



현대차의 코나 EV



현대차 투싼 독일서 가장 경쟁력 있는 SUV

현대차 투싼이 독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선정됐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독일의 유력 자동차 잡지 아우토티트(Auto Bild)가 최근 C-SUV 차급 3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투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C-SUV는 유럽에서 SUV를 나누는 A부터 E까지의 차체 크기별 분류 중 세 번째 차급으로, 국내 분류로는 준중형 SUV에 해당한다. 아우토티트는 이번 평가에서 투싼과 마쓰다

CX-5, 르노 카자르 등 세 가지 경쟁 차종을 놓고 ▲차체 ▲엔진 ▲주행성능 ▲연결성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 등 7개 부문 52개 항목을 평가했다.
 투싼은 750점 만점에 524점을 얻어 CX-5(522점)와 카자르(510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투싼은 실내 개방감·적재·견인하중·품질·가속성능·제동·후석시트 안락감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GM 다마스·라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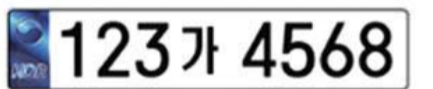
한국지엠(GM)이 경 상용차 다마스와 라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GM은 오는 4월 15일까지 다마스와 라보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과 관련된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된 고객(대상)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 2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 원 상당의 차량 랩핑 서비스, 야외 배너, 로고 디자인 제작 등 사업 마케팅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다마스 및 라보 차량과 연계된 자신만의 독특한 사연을 쉐보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5월 3일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9월부터 7자리 자동차 번호판 발급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 새겨

올해 9월부터는 7자리로 늘어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번호판 왼쪽에는 청색 바탕에 국기를 상징하는 태극문양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진다.
 밤에도 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 재질은 반사필름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여론 수렴과 전문가 검토, 공청회, 국민 선택조사, 공공디자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작년 말 새 자동차 번호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새 번호판 규격과 구체적인 색상, 숫자 및 글자 크기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새 번호판은 앞에 숫자 한자리를 추가해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 형태가 된다. 이를 통해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자리가 3자리로 늘어나면 차량 용도에 따라 119, 112 같은 특수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번호판 디자인도 손질해 바탕색의 경우 지금까지 흰색을 사용하던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은 눈에 잘 띄도록 청색을 사용한다.
 홀로그램은 미등류 등 불법 차량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비스듬한 각도로 보거나 빛을 비출 경우에 식별이 가능하다. 새 자동차 번호판은 9월 1일부터 발급하되, 운전자의 희망에 따라 현행 페인트 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